

합격기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렬 합격]

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게



정지윤

- 1986년 2월 생
-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제54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 합격

I. 들어가며

2010년 11월 13일, 과천에서의 면접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준비했던 마지막 멘트를 면접관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수험생활의 최종 관문을 지나왔다는 생각과 함께, 수험 기간 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 후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며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인생에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잘 한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세상의 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날, 부모님이 저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하며 울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기에, 최종합격을 향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험기간동안 마음이 헤이해지거나 불안감에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합격 수기를 보고 자극을 얻거나 공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기에 저의 합격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II. 시기별 공부방법

1. 전체 수험기간 활용

(1) 여름, 1순환 : 이해

저는 3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신림동으로 방을 옮겨 2007년 7월부터 모든 과목 1순환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고시공부에 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에 주위에 함께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과 함께 경제학(김진옥), 행정법(김기홍), 행정학(정경호), 정치학(정원준) 1순환 수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면 헤이해지고 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학원수업과 일정에 의존하여 그 진도를 따라가며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공부계획과 진도를 짜서 하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도에 따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원수업 일정을 믿고 거기에 따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예비순환을 듣고 1순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름부터 처음으로 1순환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한다면 조금 벅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미시, 행정법 총론, 행정학, 정치학 수업 등 과목별로 1-2과목 정도씩 듣고 휴학을 했기에 조금 수월할 줄 알았는데, 막상 1순환을 들어가보니 학교 전공과는 달리 과목별로 방대한 범위를 소화해야 했기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2008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4월부터는 아예 행정고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동안의 지쳐있던 심신을

달래려 부모님 밑에서 고향에서 폭 쉬었습니다. 8월에는 심지어 유럽에도 다녀오고 다른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비록 처음 하는 도전이었지만, 고시 공부는 하루 종일 긴장하며 몇 개월씩 장기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와 체력 저하가 급격하게 왔고, 1차에 낙방하고 나니 2차공부에 대한 의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낸 후 다시 마음을 다 잡아 9월부터는 휴학을 계속 한 상태에서 환경을 바꾸어 학교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1순환 수업을 인터넷으로 들으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9년에도 1차 시험에 또 불합격하고 나서는 의욕을 잃고 이 길이 과연 저의 길인가 불안감에 휩싸여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고시 공부에서 아예 손을 댄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학교에 복학하여 고시공부와 관련 없는 수업들로 한 학기를 열심히 보냈지만, 제가 간절히 바랐던 이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가다듬고 여름부터 신림동으로 집을 옮겨와 1순환부터 다시 경제학(김진옥), 행정법(김기홍), 행정학(정경호), 정치학(신희섭)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1순환 시기에는 매일 매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과목별로 착실하게 진도를 복습하시고 1순환 시기에 각 과목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체화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환 때부터는 답안연습과 정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순환 기간 내에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미뤄두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강사님이나 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시고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음의 시간 낭비를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가을, 2순환 : 정리

2순환 수업은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듣지 않고 혼자 스스로 정리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공부하면 조금 헤이해지는 경향이 많아서 2순환은 경제학(김진욱), 행정법(김기홍)까지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행정학과 정치학 수업은 12월에 있었던 관계로 보다 1차에 집중하기 위해 학원수업은 듣지 않고 이 두 과목은 1차 공부와 병행하며 기본서를 읽거나 논문을 보았습니다.

2순환 때는 이틀에 한번씩 답안연습을 하게 됩니다. 1순환 때 각 과목별로 이해했던 것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답안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는 2순환 시기에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기존 범위를 복습함과 동시에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공고히 하고, 1순환 시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결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순환을 들으실 때는 1순환 때 이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보다 확고히 하시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완벽하게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안연습을 동시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실력을 보다 업그

레이드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순환 때는 본격적으로 서브를 완성해야 하므로, 이 때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자료집을 만들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이 2순환 시기에 정리해 놓은 행정법 서브와 경제학 자료를 중심으로 3순환 때는 여가다 살만 붙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 돌아온 봄, 3순환 : 나만의 자료집 완성 및 암기

저는 그간 1차에서 낙방하고 2010년에 처음으로 1차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3순환 수업은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강의, 스터디, 서브 준비 등등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2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순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잘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들었거나 익숙했던 강사를 중심으로 3순환 수업 경제학(김진욱), 행정법(김기홍), 행정학(정경호), 정치학(강제명), 정보체계론(정경호) 수업을 모두 오전반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전반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오후와 저녁시간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지하며 공부했던 학교 친구와 스터디를 조직하여 저녁시간대에 매일매일 50점짜리 답안을 하나씩 더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2차 답안스터

디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막상 시작하고부터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의 답안을 첨삭해주고 또 고쳐나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주위에 함께 공부한 친구나 선배들의 경우 모두 답안스터디를 조직하여 연습했습니다. 스터디를 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3순환 시기의 경우 이젠 ‘이해’가 아닌 ‘실전중심으로 답안 최적화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한 답안작성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혼자 답안을 쓸 때와는 달리 다른 분들의 답안을 돌려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모 합격수기에서 “3순환 때 가장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순환을 처음 들으며 정말 많이 불안했었고, 아무런 노하우도 없었기에 2차 경험이 있으신 다른 수험생들과 경쟁하여 뒤쳐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이 3순환 시기(3월부터 5월)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합격에 보다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3순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처음으로 2차시험에 도전하지만, 절실히 최종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3순환 시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3순환 시기에도 암기가 완벽히 되지 않아 답안 작성시 서브와 강의노트를 참고하여 쓴 적도 많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제 주위에 아무것도 안보고 답안을 척척 쓰고 제출하시는 수험생들을 보고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인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 합격수기에서도 3순환 시기에는 시험전날 볼 자료를 콤팩트하게 완벽히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본격적으로는 5월말부터 시험 직전까지 미친듯이 외우고 외우고 외우라는 충고를 보고서는 또 다시 희망을 얻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만든 이 자료를 시험전날 다 봤다면 난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버리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서브를 과목별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시간낭비입니다. 저는 기존에 1순환, 2순환 때 정리했던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함과 동시에 그날 배웠던 진도는 완벽히 복습했고, 지금 외워두어도 과목별로 순환이 돌아가면 그전 과목에 대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남겨두고, 각 과목별로 목차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기본적인 뼈대를 중심으로 크게 크게 암기했습니다.

(4) 4순환 : 본격적인 암기

이 때는 서브를 정리할 시간도 없고, 내용을 새롭게 '이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시험날까지 끊임없는 답안연습과 본격적인 실전용 암기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4순환 수업은 주위 친구들은 거의 듣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황종휴), 행정법(김기홍), 행정학(박경효), 정치학(신희섭)을 등록해 들었습니다.

사실 4순환 수업이 시간낭비라는 의견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4순환 시기에 수업을 들었던 것을 지금까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최적화하여 강사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고 특히나 익숙했던 강사님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합격한 제 주위분들 중 4순환 수업은 따로 안 듣고 답안연습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성향을 잘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순환 때 크게 크게 암기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는 서브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사항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저만의 두문자어를 만들어 외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포스트 외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독서실 책상에 붙여놓고 눈이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또한 혼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하루에

100점 답안을 스터디원들과 연습하면서 시간 관리에 힘썼습니다.

2. 시험기간

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었고 서브 버스를 타고 성균관대까지 매일 버스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2차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첫날 행정법 시험을 치르고 나왔는데,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을 하다가 미처 쓰지 못한 논점들이 몇 가지 떠올랐습니다. 독서실에 돌아와서 보니 너무 긴장한 탓이었는지 놓친 논점들이 계속 떠올라 저는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얻은 2차 기회인데 첫날부터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평평 울면서 다음날 과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학에서 너무 생소한 문제가 나와서 개요작성에만 40분이 넘게 걸렸고, 문제를 완벽히 풀지도 못하고 심지어 계산실수까지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침종이 울릴 때까지 급하게 답안작성을 했고, 또 독서실로 돌아와 절망감을 느끼며 다음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두 과목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나머지 세과목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을 버텼습니다. 시험기간을 이렇게 보낸 후라 그런지 2차 합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저에게 합격소식은 더 감격적이었습니다. 합격한 주위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다들 시험 종료 이후에 실수한 것들, 놓친 것들

이 생각나서 괴로웠다고 하는 걸 보니,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시험기간 5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남은 시험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혹여나 각 과목을 모두 만족스럽게 작성하고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I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 과목

저는 1차에 두 번 낙방하고 2010년에 처음으로 1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개인적인 편차가 큰 시험입니다.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매년 수월하게 합격하시는 주위 선배들을 보면서 사실 자괴감이 시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계속 낙방하는 1차 때문에 제가 간절히 원하던 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처음 1차를 준비할 때는 1월에 심한 독감을 걸려 거의 한달을 고향에 내려가 쉬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출문제를 풀면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1차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와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안이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고 그 결과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두 번째 1차 도전에서는, 강사 모의고사를 푸는 것에만 주력했고 제대로 된 오답풀이와 정리를 하지 못한 탓인지 점수 차는 근소했지만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세 번째 1차 도전에서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차를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을

했고, 1차 또한 '해도 안돼'가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비로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 시험 직전인 12-1월에는 너무 불안했기에 2차 공부는 일단 미뤄두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행정학, 정치학 관련된 논문과 기본서를 짚을 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 매일매일 오전 8시부터 학교 친구들과 언어를 풀고, 오후 1시부터는 다른 스터디원들과 자료를 풀고, 오후 8시부터는 친구들과 상황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3과목씩을 풀고 중간 시간에 리뷰를 했습니다. 가끔씩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 이번에도 또 1차 낙방의 악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에 휩싸여 밤에 집에서 울며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을 착실히 준비한 덕분인지 저에게도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준비기간 동안 편차가 심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어 항상 규칙적인 페이스대로 꾸준히 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언어논리

저는 수능에서도 항상 언어가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0월부터 스터디를 조직해서 20문제씩 매일매일 강사님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어가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신문을 따로 구독하면서 밤에 집에 오면 자기 전에 사설을 매일매일 빠르게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는 매일 아침 언어논리를 풀면서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강사님들 강의도 들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강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한 함께 하던 스터디원들과 논리책을 한권 정하여 진도를 맞추어 정리하면서 논리 부분도 습득하였고, 막판에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최근 5개년 PSAT 기출, 10개년 수능, leet, meet, deet 문제를 모두 구해 풀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 푸실 필요는 없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어 저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언어는 조금 힘들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작년에 비해 15점 가량 상승해 있었습니다.

(2) 자료해석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료해석을 풀 때는 마음이 가장 편했고 이번 1차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모의고사나 기출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2008년에 처음으로 응시했던 저의 자료해석 점수는 40점대였습니다. 자료해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전혀 풀이 요령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려 못 풀 문제가 많았는데, 이후에 신현선생님과 이승일 선생님의 강의를 번갈아 들으면서 문제 푸는 요령과 계산하는 방법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준비를 착실히 하시면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 향상 가능성이 매우 큰 과목입니다. 자료해석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강을 최대한 많이 풀었습니

다. 더불어 강사님들의 강의를 십분 활용해서 그것을 체득하고자 많이 노력한 덕분인지, 처음 자료해석을 응시했을 때보다 40점 가량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료해석은 문제 푸는 연습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매일매일 함께 문제를 풀고는 혼자 독서실에 와서 리뷰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은 리뷰 시간만 2-3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2시 반까지 문제를 풀고 독서실에 돌아와 3시부터 거의 6시까지 리뷰를 미친듯이 그리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춘 문제까지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찾아서 따로 A4 용지에 저만의 자료해석 정리집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제가 정리한 정리집과 신현선생님의 정리집으로 요령을 완벽히 숙지하고 계속 반복하였고 이를 시험에 활용했습니다.

(3)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상황판단을 대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스터디원들과 퀴즈책과 논리책을 정하여 함께 진도를 맞춰 풀면서 퀴즈 문제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중 모의고사 문제는 풀어서 시간 맞추는 데 의의를 두되 자료해석처럼 리뷰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 틀린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

다. 상황판단은 언어나 자료처럼 문제들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강 문제를 완벽히 준비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히려 마음가짐을 가볍게 하고 시간관리와 낯선문제친화력 키우기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범용자료를 많이 읽고 들어갔는데 마침, 제가 보았던 조문들이 시험문제에 출제돼 낯설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2. 제2차 과목

(1) 경제학

저는 2차 과목들 중 경제학을 준비할 때가 가장 마음이 무거웠고 또 적성에도 잘 맞지 않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의 조언을 참고하여, 미시는 문제풀이에 중점을, 거시는 논리적인 흐름과 학과의 이해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3순환 모두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강사님 워크북을 삼공파일로 만들어 미·거시 서브를 각각 완성했었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업을 들으면서 추가할 것은 끼워넣으며 서브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숙지했습니다.

미시는 이준구 저를 기본서로 하여 공부했습니다. 미시는 문제를 많이 풀어 다양한 유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식적인 답안 작성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영환 저 해설 미시, 강사님들의 최근 3개년 모의고사 문제,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등 스터디에서 최

대한 문제를 많이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거시는 정운찬 김영식 저를 기본서로 하였고 국제경제학 분야는 김경수 박대근 저의 교재를 참고하여 병행하여 보았습니다. 거시는 특히 용어의 정리와 흐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만의 개념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거시의 중요한 개념을 모두 정리했고, 학과 흐름을 그래프로 도식화 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항상 체화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사 논점이 중요하기에 스터디 원들과 간단히 서로 현재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신문 등을 보면서 시사 이슈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2) 행정법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행정법은 경제학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총론, 구제법, 각론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암기량 때문에 벽찰 때가 있었지만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니 경제학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법은 1~4순환 모두 김기홍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홍정선 저를 기본서로 하였는데, 책에 자료를 끼워 넣는 식으로 서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너무 두껍고 도저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행정법은 모든 범위를 제 손으로 쓰면서 목차 중심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1-2순환을 거쳐 오면서 서브를 완벽하게 완성했고 3순환 시기에는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판례나 학설 등을 추가나 수정만 하였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서브를 새로 만들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처럼 서브노트를 따로 정리하

여 만드실 분들은 3순환 시작전에 서브 노트를 80%이상 완성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전'의 활용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법과 각론을 공부할 때 법전을 활용하면 유용한 점이 많고, 조문 숫자를 인용함으로써 답안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기에, 법전을 항상 옆에다 두고 활용할 조문을 반복하여 눈에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전략은 바로 '판례'와 '사안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설은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완벽히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사님이 가르쳐주신 중요 판례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정확하게 외워서 답안에 꼭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외우기가 힘들었으나 반복 또 반복하며 암기하다 보니 이 주제에 관련된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 사건이름과 문구가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안포섭은 문제와 유기성있고 짜임새있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답안연습을 통해서 향상되기 때문에 답안작성을 많이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행정학

정경호 선생님의 1, 3순환 강의를 들었는데, '실전중심 행정학'을 삼공노트로 만들어 서브로 활용했습니다. 행정학 또한 총론, 각론(조직, 인사, 재무), 윤리, 개혁 등 세부 주제가 방대하므로 이들을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정학 공부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행정학 전공이었지만, 수험 행정학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는 행정학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카테고리화 시켜서 바라보고 항상 목차에 맞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론에서 뉴거버넌스나 NPM, 시민사회 등 관련주제가 나올 때는 항상 '목적/주체/방법'의 틀로 생각하고자 했고, 조직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틀, 인사는 PLAN/DO/SEE의 틀로, 재무는 재정효율성/재정민주성의 틀로 크게 잡아놓고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 맞게 생각하고 암기한다면 모든 내용을 비체계적으로 암기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 때 받은 최신사례집을 그때그때 포스트 잇이나 작은노트에 간단히 정리하여 놓고 시험전날에 반복해서 암기해 답안에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사나 재무 같은 경우는 최신사례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정리할 때 강사님이 수업시간에 알려주신 최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과 같은 경우 흥미는 있었으나, 이 또한 범위가 방대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신회섭 선생님 1순환, 강제명 선생님 3순환을 들었는데 서브는 이원강 선생님의 액션정치학을 삼공노트로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또한 정치학은 단순 암기가 아닌 본인만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히 정립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에 현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책을 통해 논리구조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일요일 오후에 논문스터디를 했는데 논문을 각자 분담하여 정리해 온 자료를 중심으로 한명씩 브리핑, 토의의 순서대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교수님들 논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이해,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기본서도 모두 주제별로 A4 한 장 이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논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구를 그대로 답안에 활용하고자 했고, 주제별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결론지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놓았습니다. 정치학은 이렇게 논문스터디를 꾸준히 한 것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등장하는 유명한 학자와 그 내용을 따로 작은 노트에 정리해 놓고 짬이 날 때마다 이를 암기하면서 이를 답안에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대이슈(여성, 환경, 핵 등)와 같은 경우는 시험 2주전에 중요한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노트로 간단히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시험전날에는 액션정치학 서브노트와 그동안 정리해놓았던 논문자료, 학자노트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돌렸고, 이를 실전에 가서 많이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5) 정보체계론

선택과목은 다른 필수 과목에서 혹여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 선택과목이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체계론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과목보다 양이 적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보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 정보체계론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만을 암기해서 쓴다면 20점대 중반밖에 득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넘어 보다 안정적으로 득점하려면 정보정책 최신 사례가 항상 업데이트 돼야 하고, 생소한 기술적인 부분 또한 역사적 변화과정과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경호 선생님의 3순환 수업을 듣고 이때 수업 교재를 삼공노트로 만들어 서브로 활용했습니다. 수업 때 제공해주시는 최신사례와 통계수치 등을 작은 노트에 별도로 정리하여 시험전날까지 반복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법조문 숫자도 외우고,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를 하나씩 암기하여 답안에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시험장에서 제가 준비했던 최신사례, 통계수치, 법조문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제3차시험(면접시험)

같이 합격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2차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은 불과 만나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과 공포가 밀려왔고 면접설명회에 다녀온 후 함께 합격한 학교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면접스터디를 꾸렸습니다. 3차에서도 불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이기에, 면접준비를 하는 4주 동안은 돌이켜보니 수험기간 중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스터디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보가 수집되고 실전에 맞게 매일 면접시험을 연습하게 되는데, 저희는 기존의 합격생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감사히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IV. 수험생활

수험생활을 하시는 동안 공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기간 레이스를 경주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이를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기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건강관리입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하던 2008년 1월에는 거의 폐렴직전까지 기관지 쪽이 악화되어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공부를 해보겠다고 독서실에 가서 나오는 기침을 최대한 참아가며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길에 기침하는 분 독서실 나오지 말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길로 집에 돌아와 서럽게 울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3주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누워 쉬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허리디스크에 걸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3순환 경제학 시기 때는 심한 독감으로 고생을 하며 5일을 학원에 못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었습니

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불가능하므로, 건강관리에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실 시험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욕과 자신감이 컸기에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1차 불합격과 길어지는 수험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고 성격까지 비관적으로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이 커지면 공부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활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시촌에서 가까운 절에 거의 매주 한번 씩 방문하여 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것은 고시생들만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겠지만, 저는 토요일 공부가 끝나면 방에 돌아와 밀린 쇼프로그램을 보는 낙으로 2차 공부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4월 말까지는 일요일에는 집에서 잠을 충분히 자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등 많이 쉬려고 하였습니다. 잘 쉬는 것도 다시 한주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여 한 주간 쌓였던 피로를 푸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IV. 나가며

합격수기를 쓰면서 지난 저의 수험생활을 돌아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뿌듯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작년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까지 단 한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발 뻗고 누워 자본적이 없

다는 푸념을 친구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간절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험생들에게 이것은 정말 힘든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즉 초심을 항상 기억하고 공부하신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단지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수험공부를 하면서 불안감은 있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마음가짐을 향

상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될 텐데’라는 의식이 많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해답의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여기에 바치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필히 합격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